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양은정¹, 박지원², 문소영^{2*}

¹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 ²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Music Therapy as a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 Recognized by Social Workers in the COVID-19 Crisis

Eunjung Yang¹, Jiwon Park², Soyoung Moon^{2*}

¹Interdisciplinary Program of Psychology Rehabilitation, Myongji University

²Music Therapy Department, Myongji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음악치료서비스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5명이었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를 위한 제안'이라는 3가지 범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음악치료서비스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 음악치료가 활용되기를 바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으로 치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사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역량의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음악치료사 간의 긴밀한 교류 및 협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사회복지 현장의 음악치료 적용에서 체계의 재구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 음악치료서비스의 대면/비대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탐색해본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how social workers perceive music therapy as a resource for psychological prevention under the COVID-19 global pandemic by applying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five social workers with experience in music therapy services, an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evant data were conducted from June 2020 to March 2021. The collected data fell into three categories: 'music therapy as a resource of psychological prevention', 'limitations felt as a program mediator' and 'proposals for music therapy'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e results confirmed the perception that music therapy is useful as a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music therapy services have a positive effect in social welfare settings. On the other hand, as treatment services were discontinued due to social distancing and quarantine guideline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limitations in their capabilities and took on the role of therapists instead. This indicates the necessity of a clos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workers and music therapists and provides input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applying music therapy in social welfare setting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ploring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face-to-face/non-contact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services as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s in crises such as the COVID-19 global pandemic.

Keywords : COVID-19, Social Worker, Psychological Prevention, Music Therapy, Colaizzi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Moon(Myongji Univ.)

email: symoon@mju.ac.kr

Received May 31,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Revised July 23,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발발 이후 장기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감, 타인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1]. 특히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온 국민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심리방역'이라는 용어가 대두되었다[2]. 심리방역이란, 감염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

음악치료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를 도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3]. 음악은 즐거운 경험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4]. 음악이라는 소리 자극은 다른 매체 치료와 차별성은 가지는데 음악의 리듬, 선율, 화성 등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한 음향은 인간의 신체적-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치료적 역할을 한다[5]. 또한 음악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6]. 음악치료의 다양한 기법들에 의한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의 음악 활동은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음악치료서비스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방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7].

심리방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화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심리지원서비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 금지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지연·중단되었다[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치료의 중단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었다. 장애인의 경우 가족 돌봄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무료함과 우울감이 증가되어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의 저하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0].

음악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담당자의 인식과 견해는 서비스 시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1].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음악치료서비스를 계획·진행하고

해당 사례를 관리한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12]. 이에 사회복지사의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관한 인식은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따라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될 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중재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도 있다[13,14].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사태가 이후로도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심리방역에 관한 대안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서비스 중단이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13]. 재난심리지원 전문가들은 심리적 위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한다[15].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전화상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교육과 평가, 상담 연결과 같은 1차원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15]. 국가기관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 해당 종사자의 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려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심리방역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Colaizzi[16]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사회복지사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관한 인식을 이해·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절차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선행연구 고찰,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2.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적 표집과 연구 목적과 관련한 경험이 충분하므로 자신의 인식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이들로 선정하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17]. 이에 따라 자신의 근무 기관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관찰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선정하였다. 세부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 경력에 5년 이상인자, 음악치료 사례관리 경력에 3년 이상인자로 하였으며, 성별 및 특정 사례관리 대상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5명이며, 근무 경력은 평균 10.8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설·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yr)	Affiliation	Career (yr)	Main clients
A	37	welfare center	12	disabled person
B	33	welfare center	8	disabled person
C	35	mental health center	9	children, mental patient
D	39	senior welfare center	13	elderly
E	51	volunteer center	12	elderly

연구자는 윤리적 이슈와 관련하여 수집된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 및 비밀 보장, 연구에만 사용할 것, 연구가 종료된 후 파기할 것을 문서화하였다. 또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윤리와 목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2020년 6월 말부터 2021년 5월까지 대면과 전화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개별 심층 인터뷰를 다수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의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였고, 인적 사항에 관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위한 연구 질문들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식과 견해를 피력하도록 개방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반 구조화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기관에서 시행한 음악치료 세션을 참관한 경험은 어떠한가요?
- 2) 음악치료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은 어떠한가요?
- 3)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가요?
- 4)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음악치료가 시행될 때의 고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5) 비대면 음악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난 지 일주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에 머무르며 연구자의 선입견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Colaizzi[16]의 프로토콜 분석 절차를 따랐다. 분석 절차는 첫째, 인터뷰 축어로부터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관계된 의미 있는 진술을 문장이나 구의 형식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셋째, 재진술된 것으로부터 구성 의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와 주제 모음, 범주로 조직하였다.

2.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단 중지의 노력을 하였으며 자료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관점에서 참여자 확인을 통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 전문가 2인과 사회복지사 2인이 분석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Colaizzi[16]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자료에서 251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로부터 1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7개 주제 모음, 3개의 범주로 조직화하였다(Table 2).

그 결과 3가지의 범주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를 위한 제안’으로 나타났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social worker’s experience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Music therapy as a resource of psychological prevention	Belief in the therapeutic capability of music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COVID-19 situation, Helps relieve stress
		Application Flexibility
	Witness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A variety of approaches to music therapy delivers comfort
		Positive changes in the client are exposed There are client who need music therapy, a resource of psychological prevention
Limitations felt as a program mediator	Requiring a collaboration with music therapists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support felt due to service interruption
		Each has a professional role
	Limit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 system	Quarantine standards of government that are not in line with actual statu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No system in place for non-face-to-face sessions
Suggestions for music therapy in the situation of COVID-19 global pandemic	A necessity for parallel running of face-to-face music therapy	Small-scale face-to-face therapy with compliance with personal quarantine criteria
		Partial availability of a face-to-face therapy allowed in special disability groups
	Perception of the untact music therapy	Composition of music therapy activities for non-disabled people that can be encountered in daily life
		A group of client who are better fit in untact therapy
		Suggesting a variety of untact music therapy methods
	A Necessity of untact music therapy application guidance	Lack of information on non-face-to-face music therapy applications
The idea on untact therapy has transitioned to an open minded		

3.1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이 범주는 ‘음악의 치료적 힘에 대한 신념’, ‘음악치료 효과를 목도’라는 두 개의 주제모음을 포함한다.

3.1.1 음악의 치료적 힘에 대한 신념

참여자들은 음악을 듣거나 경험할 때 감정의 변화를

느꼈던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한 감정을 잊게 되었던 경험에서는 음악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음악이 가진 치료적 힘을 인지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음악을 들으면 잠시라도 불안감을 잊게 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위로받고 싶어서 일부러 예전보다 영상이나 음악들을 더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3.1.2 음악치료 효과를 목도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음악치료의 효과를 목격한 경험들이 있었다. 음악치료 세션을 참관했을 때, 내담자들이 음악 활동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종종 우울증을 가진 내담자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거나, 망상이 심했던 환자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던 다양한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

내담자 중에 망상이 심했던 여분이 있었는데 음악치료는 망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회기가 갈수록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정상화되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중략) 서로 협동하거나 합주하거나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들이 스스로 느껴졌나 봐요.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의미 있게 느껴졌었어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으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기에 심리방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음악치료서비스를 통해 공감과 심리적인 지지가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도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느낌이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행동반경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나가요 되나?' 하는 불안감들이 계속 은연중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담자들은 더 하겠죠. (참여자 D)

3.2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이 범주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모음은 ‘음악치료사와 협업 요구’, ‘사회복지관 시스템의 한계’였다.

3.2.1 음악치료사와 협업 요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치료서비스는 줄어들었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졌다고 한다. 이에 참여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음악적 심리지원을 시도해 보았지만 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 이들은 음악치료 전문가 고유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와 치료사의 콜라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음악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하는 것과 전문적인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감기에는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 듣고 오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내담자들이 마음껏 감정을 분출해내고 원하는 것들을 풀어내도록 유도할 때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여자 B)
제일 중요한 건 콜라보인 것 같아요. 음악치료사들이 음악적으로 진단하거나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여자 C)

3.2.2 사회복지기관 시스템의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기관 이용자들은 심리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방역 기준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복지기관에서 방문자를 제한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진행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장 먼저 중단되거나 보류되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비대면 세션을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대면과 관련된 복지관 운영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기에, 참여자들은 치료서비스 제공의 위기를 보고했다.

정부기관에서는 조심하라는 공문만 내려올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기관에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뒤집어쓰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여자 A)

3.3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서비스를 위한 제안

이 범주에서는 세 개의 주제모음 ‘대면치료 병행의 필

요성’, ‘비대면 음악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 ‘비대면 음악치료 적용 안내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3.3.1 대면치료 병행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치료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소규모로 진행될 경우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지가 낮은 중증 장애인이나 신체적 제한이 많은 중증질환 내담자의 경우 대면세팅이 더 낫다고 하였다.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건 기본이고, 도구를 활용할 때는 사용 전, 후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 없어야 하고, 개별적 도구를 갖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참여자 E)
인지가 낮은 친구들은 저희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표현도 집중도 전부 힘들거든요. (참여자 B)
노인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체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조금 보시지 그 다음부터는 안보신대요. (참여자 D)

3.3.2 비대면 음악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

참여자들은 심리방역을 위해 코로나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악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인기피증, 은둔형 외톨이, 장소 이동이 어려운 신체장애군 등 대면치료가 어려운 내담자들에게는 비대면 치료가 더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비대면 치료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특정 대상군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원격 시스템을 통해 음악 들려주기, 동영상 콘텐츠 만들기, 온라인 연주회 등의 음악 적용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울증이었던 본인에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셔서 전화 상담만 원하세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두려워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략) 청소년들도 오히려 온라인에서 좀 더 본인을 표출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익명 보장이 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 편안하게 생각 할 것 같아요. (참여자 C)

3.3.3 비대면 음악치료 적용 안내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많은 사회복지사가 음악치료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비대면 음악치료에 관한 가이드가 있다면 개방적인 관점이 생겨남과 동시에 음악치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음악치료는 무조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담자 얼굴과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비대면이 더 나은 것 같은 대상군도 있네요. (중략) 아마도 지금까지 비대면 음악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대면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C)

4. 논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고립감, 우울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음악의 치료적 영향력을 체험한 적이 있어 전문적인 음악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음악치료의 직접·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거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음악치료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도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은 음악치료서비스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Back[1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심리방역 방안으로도 제안될 때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 현장의 체계를 바꾸어 놓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치료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주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심리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19,20]. 서비스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호소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음악을 제공하도록 유도했으나,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음악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음악치료사

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료사와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전문성이 있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내담자의 복지가 보장되고, 기관 시스템이 유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Oh[21]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음악치료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뇌병변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한 대면 치료와 비대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대안인 점과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치료가 더 나은 내담자군이 있다는 점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치료시스템의 전환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ole et al[22]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의 나라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비대면 임상에 관한 설문을 통해 새로운 임상 접근에 관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Yoo, Im & Ha[23]는 줌 플랫폼을 통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과의 상호적 노래부르기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제 비대면을 위한 임상적 전환 및 병행을 위한 치료사들의 시도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사와 내담자의 능동적 참여 촉진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디지털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운영 지침 마련 요구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Yoo & Jeon[13], Kim, Moon & Lee[14], Han[24]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를 통해 입증되어왔다[25-27]. 음악은 즐겁고 편안한 접근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감염 때문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음악은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심리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서비스를 위한 제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음악의 치료적 힘을 체험한 바가 있고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므로 치료사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담은 연구로 전체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전부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양적연구와 음악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의 가능성을 고찰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음악치료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재정비될 사회복지기관의 치료서비스 운영시스템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 대안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trauma. Psychological support guidelines for COVID-19, Retrieved form <https://nct.go.kr/serviceCnverter/noticeList.do>, 2020.
- [2] Yonhap News Northeast Asia Center. Available From: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00406182005_530410 (accessed Mar. 22, 2020)
- [3] K. E. Bruscia,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Barcelona Publishers. 1998.
- [4] A. P. Merriam, V. Merriam, The anthropology of music. Northwestern University Publishers. 1964.
- [5] H. J. Chong, Influence of music on human behavior. Seoul: Hakjisa Publishers. 2011.
- [6] Y. S. Kim, "Music Theray Trend and Tasks in the COVID-19 Outbreak",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22, No.2, pp.1-28, 2020. DOI: <https://dx.doi.org/10.21330/kimt.2020.22.2.1>
- [7] H. J. Chong, Music therapy :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Ewha University Publishers. 2005.
- [8] Maeil Business News Korea. Available From: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321749 (accessed April. 20, 2021)
- [9] Able news. Available From: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126172915921376#z> (accessed Jan. 26, 2021)
- [10] Domin News. Available From: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643> (accessed Jan. 4, 2021)
- [11] J. Y. Moon, "Mental Health Experts' Conception of Mosaic Therap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12, No.2, pp.33-60, 2010.
- [12] E. K. Jung, *A Case Study of the Context and Process of Nursing Home Social Worker's Role Performanc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6.
- [13] B. S. Yoo, H. J. Jeon, "A stud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orona 19 in elderly welfare center workers" *Journal of KSSSS*, Vol.54, pp.27-46, 2021. DOI: <https://dx.doi.org/10.18346/KSSSS.54.2>
- [14] Y. J. Kim, S. Y. Moon, Y. H. Lee, "Social worker's experiences in practi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asks for post-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1, pp.10-18, 2021.
- [15] S. A. Lee, H. D. Cho, "The research on psychological support in outbreak of epidemic :Focus on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Vol.16, No.4, pp.165-180, 2020.
- [16] F. U.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gist Views, in R. S. Valle, M. King,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39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8-71.
- [17] M. Patton,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d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0.
- [18] S. Y. Back,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as a Countermeasure for Job Stress of Fire Official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9.
- [19] Joongdo News. Available From: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309010003657> (accessed Mar. 9, 2021)
- [20] Seoul welfare education center. Retrieved form: <https://wish.welfare.seoul.kr/swfilmsfront/board/boar dr.do?bno=87241> (accessed Jan. 25, 2021)
- [21] S. H. Oh,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music therapy and Social Welfare system", *Korea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1, No.2, pp.131-145, 2004.
- [22] L. P. Cole, T. L. Henechowicz, K. Kang, M. Pranjic, N. M. Richard, G. L. Tian & C. Hurt-Thaut, "Neurologic Music Therapy via Telehealth: A Survey of Clinician Experiences, Trends, and Recommend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neuroscience*, Vol.15, pp.347, 2021.
- [23] G. E. Yoo, J. Y. Lm, E. J. Ha. "Feasibility of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interactive sing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uring COVID-19",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18, No.1, pp.29-62, 2021. DOI: <https://dx.doi.org/10.21187/imhb.2021.18.1.029>

- [24] S. J. Han, "Music education activitie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status and needs analysis", *Cuture and convergence*, Vol.43, No.4, pp.293-324, 2021.
- [25] J. Y. Lee, *The function of music listening in emotion regulation*.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15.
- [26] J. Y. Lee, "Neurophysiology and Brain-imaging study of Music -music & language, music & emotion", *Nangman Quarterly*, Vol.18, No.3, pp.69-146, 2006.
- [27] K. S. Moore, "A systematic review on the neural effects of music on emotion regulation: implications for music therapy practice", *Journal of music therapy*, Vol.50, No.3, pp.198-242, 2013.

문 소 영(Soyoung Moon)

[정회원]



- 2000년 12월 :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석사 (M.Mus.) 음악치료전공
- 2008년 8월 :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박사 (Ph. D.) 음악치료전공

- 2015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학과장
- 2018년 10월 ~ 현재 : 한국음악치료심리재활학회 학회장

<관심분야>

음악치료, 신경재활

양 은 정(Eunjung Y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음악치료, 장애아동, 사회복지

박 지 원(Jiwon Park)

[정회원]



- 2021년 2월 :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국음악치료심리재활학회 학술위원장
- 2009년 2월 ~ 현재 :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평생회원

<관심분야>

음악치료, 음악학, 현상학